

## 여성 구직자의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와 취업 가능성: 여성고용률 정체 원인

박 진 희\*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 중의 하나가 여성 구직자의 일자리탐색 지역과 일자리 기회가 있는 지역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구직자가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겪는 공간적 제한에 대해 잠재적 통근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 행정DB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구직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하며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통근시간을 받아들여야 함을 보임으로써 여성구직자가 취업하고 싶어 일자리탐색을 하는 지역과 고용기회가 있는 지역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고용촉진정책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이 통근권역을 고려하여 설계·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잠재적 통근시간, 취업가능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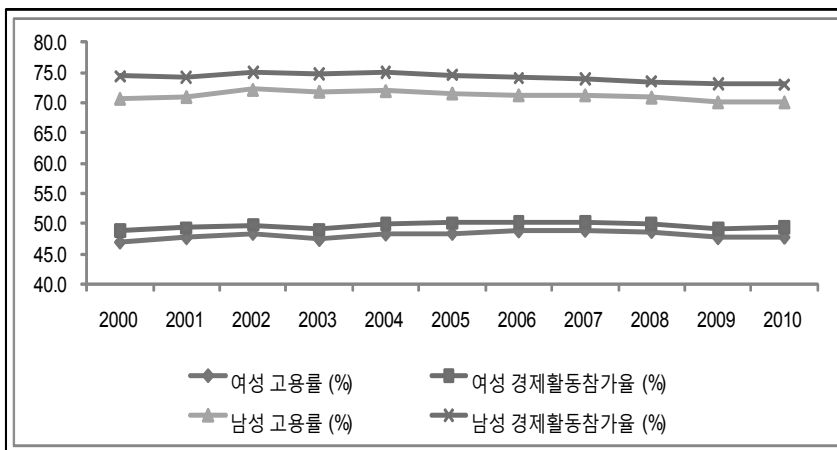
### I. 서론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 고용정책을 꾸준히 실시하여왔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의 원인을 출산·보육기 여성의 노동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parkjh123@keis.or.kr)

시장이탈과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으로 파악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 및 노동시장의 재진입 촉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및 개선하는 것으로 기업의 모성보호조치를 강화,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최대 1/2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대체인력 채용지원,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보전을 위한 급여 제도 및 배우자의 출산 휴가제 도입,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등이다. 노동시장 재진입정책은 육아, 가사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는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육아, 가사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단계적 노동시장 복귀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00년 47.0%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2006년 50.3%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여 2010년에는 49.4%를 기록하는 등 50%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림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2000~2010)

이는 정부의 여성고용촉진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의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up>1)</sup>

이글에서는 최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신고전학파의 일자리탐색이론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여기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정체의 한 원인을 여성구직자가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간적’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일자리 탐색을 시작한다. 구직자는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고용서비스기관 등 공식적 경로와 개인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공식적 경로 등 활용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다.<sup>2)</sup> 구직자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일정반경 내에서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됨으로써 ‘공간적’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일자리탐색의 ‘공간적’ 제한은 구직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 내’ 혹은 ‘접근성이 높은 지역’ 등으로 일자리 탐색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생활근거지로부터 구직활동지역이 멀어질수록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생활 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어디에서 일자리 탐색을 시작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일자리 탐색 장소로의 이동에 따른 비용 등 일자리 탐색비용이 높아지게 된다(Stoll, M.A.&Raphel, S., 2000; Gobillon, L. Selod, H. & Zenou, Y., 2007). 이러한 현상은 구직자 중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일 경우 가구 내에서 주부양자가 아니거나 주부양자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 노인수발 등 돌봄노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더욱 일자리탐색의 공간적 제한을 받게 된다(Hanson, S. & Pratt, G., 1991; Mcquaid, R. W.,

1) 김안국(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2008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여성에 대한 노동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안국, 2010 31쪽 참조).

2) 구직자들은 한 가지의 방법만을 사용해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방법을 동시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구직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일자리 탐색방법의 수는 평균적으로 2.27개였다(박진희, 2009 23쪽 참조).

Greig, M. & Adams, J., 2001).

따라서 가사 및 돌봄노동의 책임이 있는 여성의 경우 주거지 중심으로 통근시간이 짧은 지역의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듯 일자리탐색과정에서 여성구직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통근거리가 짧은 곳에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구직자에게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자리 기회 보다는 주거지 근처에서 일자리 기회가 더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이다.

또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임금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통근 유인이 더 적을 수 있다(Hanson and Pratt, 1991). 2008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127만원으로 남성 구직자의 희망임금 188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또한 거주지와 취업희망지역이 일치할 경우와 취업희망지역이 거주지와 무관한 경우 여성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각각 116만원, 151만원인데 비해 남성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각각 168만원, 234만원으로 나타나 취업희망 지역에 따른 희망임금의 편차가 여성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박진희, 2009: 52). 따라서 여성 구직자에게 있어 ‘공간’은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 중의 하나가 여성 구직자의 일자리탐색 지역과 일자리 기회가 있는 지역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여성 구직자가 겪는 공간적 제약은 여성 구직자의 선호하는 통근시간 혹은 잠재적 통근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성구직자가 남성구직자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하지만,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 구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통근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의 구직활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여성 고용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일자리탐색의 이론에 공간에 개념을 도입한 모형을 소개하고, 여성 구직자의 구직지역

제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연구모형과 분석변수들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활동에 있어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와 취업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분석결과에 기반을 두어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간개념을 도입한 일자리탐색이론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에서 일자리 탐색이론은 일자리기회와 임금에 대해 불완전한 노동시장 정보를 전제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구직자가 자신의 의중임금을 기준으로 빈 일자리에서 제시된 임금과 비교하여 취업(일자리 수락)을 할지 혹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때 구직자는 자신의 의중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일자리를 발견하기 위해 일자리정보를 탐색하며, 이 일자리 정보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탐색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확보된다(Cahuc, Pierre and Zylberberg, André, 2004).

그런데 신고전학파의 일반적인 일자리 탐색이론에 ‘공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Clark(1986)은 신고전학파의 일반적인 일자리 탐색이론은 순차적(sequential)지만 탐색경로에 지리적 편의(geographical bias)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자리 탐색에서 ‘공간’은 일자리 정보의 흐름과 정확성,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즉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지역이 일자리 정보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일자리 정보의 흐름과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한 구직자의 생활근거지가 일자리 정보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 탐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일자리탐색을 위한 시간 및 통근비용 등의 탐색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근 Clark(1986), Clark & White(1983), Holzer et.al.(1994), Simpson(1992), Rogers, C.L.(1997) 등은 일자리 탐색이론에 ‘공간’을 도입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Clark(1986)은 거시경제학적으로 지역 불완전정보하에서 경쟁적 지역 사이에 노동배분을 위한 정보수집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초과노동공급과 초과노동수요가 지역별로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Clark & White(1983)은 신고전학파의 일반적인 일자리 탐색이론을 사용하여 왜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급불일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들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의 임금제의를 평가할 때 그 구직자의 생활근거지(local)의 기준을 사용하고, 노동수요자인 기업도 구직자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때 역시 기업의 위치지역의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직자 및 기업이 분포하는 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자리 및 구직자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여 ‘공간적’으로 노동시장이 분절되어있음을 보였다.

Simpson(1992)은 공간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는 일자리탐색모델에서 개인들은 이질적인 장소에서 일자리탐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일자리분포도 이질적이라고 가정한다. 최적 일자리 탐색 배열(The Optimal search sequence)은 노동시장 지역에서 고용과 임금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각 지역마다 장소고유의 일자리 제의도달율, 임금제의 분포, 그리고 탐색비용과 관련된 의중임금이 있다. 개인들은 먼저 가장 높은 의중임금과 관련된 장소에서 탐색한다. 그리고 그다음 의중임금과 관련된 장소 등 의중임금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장소에서 탐색을 계속한다. 이것은 아마 개인들이 일자리 기회가 더 적은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일자리제의 도달율과 임금제시분포가 더 나은 더 먼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적일 것이다. 만약 도달율과 임금제의 분포가 지역별로 다양하지 않으면 최적 탐색전략은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찾아보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Rogers, C.L.(1997)는 신고전학과 노동경제학의 일자리 탐색이론에 ‘공간’을 도입한 이론을 잘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전학과 노동경제학의 직업탐색모델에서 개인들은 일정기간동안에 일자리탐색을 계속할 것인지 제시된 임금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해야한다. 이 때 최적 일자리 탐색전략은 의중임금  $w^*(t)$ 를 초과하는 첫 번째 임금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t$ 기에 의중임금은 받아들인 임금의 현재 가치와 계속적인 일자리탐색간의 현재가치를 할인한 임금과 같다.

한편,  $t$ 기에 고용될 가능성은 일자리를 제안율,  $\alpha$ ,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제안된 일자리에서 제안된 임금이 적어도 의중임금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phi = \alpha[1 - F(w^*(t))]$  이다.

이때 일자리 기회의 공간적 분포는 일자리 탐색비용  $c_s$ , 제안된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경우 통근비용  $c_c$ , 그리고 일자리 제의를 받게 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용가능성에 대한 일자리 제의 도달율(job offer arrival rate)에서의 변화효과는 다음과 같다.

$$\frac{d\phi}{d\alpha} = [1 - F(w^*)] - \alpha F'(w^*) \frac{dw^*}{d\alpha} > 0$$

일자리 제의 도달율(job offer arrival rate)의 변화는 직간접 효과를 가진다. 직접효과는 위 식의 우변 첫 항이며,  $[1 - F(w^*)]$ 는 양수이다. 따라서 의중임금이 일정하다면, 일자리 제의 도달율(job offer arrival rate)이 증가할수록 고용될 기회는 증가한다.

간접효과는 위 식의 두 번째 항이며  $-\alpha F'(w^*)dw^*/d\alpha$ 는 일자리 제의 도달율(job offer arrival rate)이 증가할수록 의중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 결국 순 효과는 두 효과의 크기에 달려있다<sup>3)</sup>.

탐색비용과 통근비용에서 변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frac{d\phi}{dc_s} = -\alpha F'(w^*) \frac{dw^*}{dc_s} > 0, \quad \frac{d\phi}{dc_c} = -\alpha F'(w^*) \frac{dw^*}{dc_c} < 0$$

3) Burdett(1981)는 순효과가 양수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F'(w^*)$ 의 로그값이 강 오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였다(Rogers, C.L.(1997에서 재인용).

따라서 순 효과간의 차이는 의중임금이 비용들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탐색비용이 증가하고, 구직자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탐색의 순현재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중임금을 낮춘다. 다른 한편 자신의 의중임금을 높임으로써 통근비용의 증가를 보상하려고 한다.

이 때 일자리탐색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면, 공간의 대리변수인 ‘거리(d)’를 활용한다. 일자리 제의율(job offer arrival rate)은 특정 일자리와의 거리에 따라 감소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주어진 기간 동안 일자리 정보의 획득이 줄어들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일자리일수록 일자리 공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탐색 및 통근비용 모두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고용가능성에 대한 거리의 총 효과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rac{d\phi}{dd} = \frac{d\phi}{d\alpha} \frac{d\alpha}{dd} + \frac{d\phi}{dc_c} \frac{dc_c}{dd} + \frac{d\phi}{dc_s} \frac{dc_s}{dd}$$

위 식 우변의 두 항은 세 번째 항이 양수일 때 음수이다. 따라서 순 효과는 가늠할 수 없다. 만약 일자리 제의율(job offer arrival rate)에 대한 거리효과와 통근비용에 대한 거리효과의 복합크기가 탐색비용에 대한 거리효과보다 더 크다면 고용가능성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떨어진다. 통근비용의 증가는 탐색비용의 증가보다 한계효과가 더 작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통근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예를 들어 전철 승차권의 정액권이라든지, KTX의 정기통근권 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 2. 선행연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탐색이론에서 공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자리탐색이론에 ‘공간’의 개념을 포함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Holzer et.al.(1994)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Holzer et.al.(1994)는 통근비용과 일자리탐색의 연구에서 교통비의 상승이 개인의 일자리탐색



범위를 제한하고, 실업기간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델은 모든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공간적 측면을 과도하게 단순화시켰다는 점(Simpson, 1992)과 몰성인지적(gender-blinded)이라고 (Hanson, S. & Pratt, G., 1991) 평가된다.

일자리탐색에서 ‘공간’과 성인지<sup>4)</sup>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 연구로는 Hanson & Pratt, G.(1991), Mcquaid, R.W., Greig, M. & Adams, J.(2001) 등 매우 소수이다.

Hanson & Pratt, G.(1991)는 남성과 여성의 직종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일자리 탐색과정 중 일자리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에서 성별로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탐색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남성보다 일자리탐색의 지역적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여성은 희망직업과 무관하게 제한된 지역 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업 후 통근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였다.

Mcquaid, R.W., Greig, M. & Adams, J.(2001)는 구직자의 잠재적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함으로써 구직자의 잠재적 통근시간이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특히 여성,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잠재적 통근시간과 부의 관계에 있어 가구책임가설(household responsibility hypothesis)을 지지하였다. 이때 가구책임가설은 여성이 가구 내에서의 분업구조와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과정에 처해있는 위치에 따라 취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거주지 근처에서 일자리탐색 및 취업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자리탐색과정에서 통근시간에 대한 구직자의 태도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통근시간과 관련한 국내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통근·통행분석을 통해 토지의 이용패턴, 도시의

4) 여기서 기존 연구에서 성인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는 성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는지를 의미한다. Holzer는 일자리탐색이론에서 공간을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성에 따라 통근시간 혹은 통근거리 등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연구를 하여 몰성인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Hanson & Pratt, G.(1991), Mcquaid, R.W., Greig, M. & Adams, J.(2001)는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성에 따라 통근거리가 달라진다는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이라고 평가된다.

공간구조, 교통량 분석등 주로 주택공급 혹은 교통정책과 관련한 연구(이성우·지우석·조중구, 2004; 마강래·강은택, 2008; 전은하·민성희·이성우, 2008) 이거나 통근시간 혹은 행태에서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노시학·손종아, 1993; 전명진, 1996; 노시학, 2000; 송운선, 남진, 김도경, 2008;)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중 간접적이거나 일자리탐색에서 ‘공간’과 성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연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노시학·손종아(1993), 노시학(2000)의 연구가 있다. 노시학·손종아(1993)의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성에 따른 직주분리와 통근통행패턴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남성취업자의 경우 직장주거지 위치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이들의 취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성취업자의 경우 직장주거지의 위치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이들의 취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남성통근자보다 여성통근자의 통근거리가 짧아 남성통근자의 직주분리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시학(2000)은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취업형태와 이에 따른 통근통행패턴을 분석한 연구로 여성 취업자의 혼인여부가 이들의 취업형태 및 통근통행패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제약의 정도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과정에서 여성의 공간적 제약의 정도를 취업 후 관찰되는 통근시간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여성 구직자가 겪는 공간적 제약은 여성 구직자의 선호하는 통근시간 혹은 잠재적 통근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가 취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분석자료, 분석모형 및 변수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구직자의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 및 취업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자료인 『워크넷DB』 중 「구직자DB」, 「고용보험취득DB」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고, 관련 변수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료인 「구인자DB」, 「고용보험취득DB」,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추출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구직자DB」는 2008년 1년 동안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속성정보 뿐 아니라 희망취업지역, 희망직종, 희망임금 등의 구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구직활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둘째, 「구인자DB」도 2008년 1년 동안 구인등록을 한 사업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노동수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수요에 대한 변수 구축을 위해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추출자료』는 통근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추출자료』에는 거주지 및 취업지역에 대한 정보 외에 통근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sup>5)</sup> 통근시간을 추출해내기 위해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취득DB」는 구직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취업은 상용, 임시, 일용,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로 구분되는데 행정자료의 특성상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는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용보험취득한 경우만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여기서 지역은 구 단위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상의 한계도 있으나 노시학·손종아(1993)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시학·손종아(1993)는 취업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거주지에 근접하여 취업하려는 경향은 높지만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적 구직범위의 정도는 최소한 동 단위의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2. 분석모형 및 분석변수

본 연구는 구직자들의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서화된 다항의 선택을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취업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취업여부가 이항변수인만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잠재적 통근시간과 취업여부이다.

먼저, 구직자의 거주 지역에서 취업희망지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잠재적인 통근시간 변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추출자료』에 통근하는 자들의 거주지와 통근지별 및 통근시간 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간 이동에 따른 범주화된 통근시간을 구하였다. 이 때 통근시간 범주는 동일 거주 지역에서 동일 취업지역으로의 통근이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용산구에서 종로구까지 출근하는 경우 버스를 활용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15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20 분정도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거주지역에서 동일취업지역으로 통근하는 경우 통근시간범주의 최빈값을 이용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통근시간을 해당지역의 통근시간으로 간주하였다<sup>6)</sup>. 다음으로, 거주지역과 취업지역을 식별변수로 만들어 통근시간범주를 구축하여, 『구직자DB』상의 거주자와 희망 취업지역을 활용한 식별변수와 결합함으로써 잠재적 통근시간을 구하였다. 이 때 구직등록자의 취업희망지에 대한 변수는 구체적으로 취업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취업지역이 무관하다거나 혹은 거주지를 포괄하는 시군구 등 포괄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지역이 있는 경우는 잠재적 통근시간 산출은 위 과정을 통해 구해지므로 문제가 없으나 취업지역 무관이나 포괄적 단위지역은 잠재적 통근시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취업지역무관이라고 응답한 구직자는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긴 경우라도 상관없다는 성향이므로 2시간 이상으로 간주하였고, 포괄적 단위지역을 희망하는

6) 본고에서는 최빈값을 이용하여 통근시간을 구성하고 있어 성별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별 통근시간의 차이가 간과될 수 있다.

경우는 해당 포괄적인 시군구간의 이동이 1시간이상 2시간 이내인 것으로 간주하여 1~2시간 이내로 가정하여 변수를 산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축된 잠재적 통근시간은 1) 30분 이내, 2) 30분~1시간 이내, 3) 1~2시간 이내, 4) 2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범주화시켰다.

다음으로 취업여부는 「구직자DB」와 「고용보험취득DB」를 결합하여 구직자 중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를 취업<sup>7)</sup>, 그렇지 않은 경우를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성, 연령, 학력 등 개인적 속성변수와 희망임금, 희망직종 등 구직정보, 구직등록사유 그리고 여성지배직종의 구인비중이 높은 지역 등을 포함하였다.

먼저, 개인적 속성변수를 보면, 성은 여성을 더미변수화하여 여성의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학력은 저학력을 더미변수화 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구직정보 중 희망임금은 구직자들이 구직등록 시에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로그화하여 변수로 추가하였다. 희망직종은 구직자들이 구직등록 시 희망하는 구직직종을 여성지배 직종, 남성지배 직종, 성경합 직종으로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성 직종분리를 구분한 이유는 희망직종과 통근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성 직종분리를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여성지배직종은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직종이며, 남성지배직종은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30%미만인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외의 직종은 성 경합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구직자DB」상 구직등록사유는 취업, 실업급여수급, 직업훈련참여, 공공근로, 기타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공공근로 및 기타를 기준으로 한 더미변수를 구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넷째, 「구직자DB」상에 가구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이다. 이는 구직자가 고용지원

7) 구직자는 고용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경우만을 취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보험은 현재 1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센터에 구직등록을 할 때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구직등록번호의 영문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환경변수로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변수로 여성지배직종의 구인비중이 높은 지역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구인자DB」를 활용하여 여성지배직종의 구인빈도를 구한 후 그 비중이 큰 지역을 선정하여 변수로 구축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1) 여성구직자는 남성구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잠재적 통근시간을 선호한다.

2) 여성구직자는 잠재적 통근시간이 짧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가설 1)의 검증을 위해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가설 2)의 검증을 위해서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변수 및 기초통계

		정의	평균	표준 편차
종속변수		잠재적 통근시간 범주	2.1186	1.0152
		취업여부	0.3769	0.0004
독립 변수	인적 속성	연령	38.6140	12.0444
		저학력더미(고졸이하이면 1, 아니면 0)	0.6119	0.4873
		여성더미(여성이면 1, 아니면 0)	0.4759	0.4994
	희망 일자리	로그 희망임금	4.9563	0.4115
		여성지배직종더미(기준: 남성지배직종)	0.2157	0.4113
	성경합직종더미(기준: 남성지배직종)		0.1697	0.3754
	지역및 가구 환경	여성지배직종의 구인이 많은 지역 더미(여성지배직종의 구인이 많은 지역이면 1, 아니면 0)	0.0570	0.2319
		빈곤가구여부(빈곤가구이면 1, 아니면 0)	0.0018	0.0422
	구직목 적	취업목적 구직등록더미(기준: 공공근로 및 기타)	0.4624	0.4986
		실업급여목적 구직등록더미(기준: 공공근로 및 기타)	0.3896	0.4877
		직업훈련 목적 구직등록더미(기준: 공공근로 및 기타)	0.0886	0.2841

주: 관측치 수는 1,915,018명

## IV.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와 취업 가능성

### 1. 구직자의 취업희망지역 및 임금과 거주지와의 관계

구직자의 취업희망지역과 거주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구직자의 취업 희망지역을 지역무관, 구 단위의 거주지를 포괄하는 시 지역 내(포괄적 단위지역), 거주지와 희망지가 일치하는 지역, 거주지와 희망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선호도를 살펴 본 것이 <표2>이다.

<표 2> 구직자의 성별 희망취업 지역

(단위: 명, %)

	남성	여성	전체
지역무관	56,276 (5.61)	11,622 (1.28)	67,898 (3.55)
포괄적 단위지역	499,595 (49.77)	319,827 (35.1)	819,422 (42.79)
거주지=희망근무지	351,368 (35.01)	475,418 (52.17)	826,786 (43.17)
거주지≠희망근무지	96,470 (9.61)	104,442 (11.46)	200,912 (10.49)
계	1,003,709 (100.0)	911,309 (100.0)	1,915,018 (100.0)

주 1: ( )는 각 남성, 여성, 전체에 대한 비중임

주 2:  $\chi^2$ 검정 결과치 : 78853.4542\*\*\*, 우도비  $\chi^2$ 검정 결과치 : 81516.0521\*\*\*, 여기서 \*\*\*는 0.1% 유의수준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은 거주지역내에서 취업하고 싶어 하는 비중이 높았고, 남성은 거주지를 포괄하는 시지역내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구직자의 절반이상(52%)이 거주지 내에서 취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내에서 일자리탐색을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남성 구직자의 절반정도는 거주지를

포괄하는 시 지역 내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은 근무지역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비중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다. ‘지역무관’이라고 응답한 구직등록자는 남성이 5.61%, 여성이 1.28%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탐색 과정에서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chi^2$ 검정 결과 검정결과 0.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구직지역의 범위에서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직자의 희망임금이 취업희망지역과 거주지와의 관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표 3〉 성별 희망취업지역별 희망임금

(단위: 만원)

	남성	여성
지역무관	228.71	149.84
포괄적 단위지역	192.49	138.04
거주지≠희망근무지	185.71	138.02
거주지=희망근무지	165.91	114.76

주 1: t-검정 결과치 : 54.96\*\*\*, 여기서 \*\*\*는 0.1%유의수준임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희망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남녀 모두 거주지에서 취업희망지역이 멀어질수록 희망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직자의 생활근거지가 일자리 정보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일자리탐색을 위한 시간 및 통근비용 등의 탐색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희망임금이 높아진다는 일자리탐색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구직자의 거주지와 취업희망지역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탐색활동이 공간적으로 제한받고 있으며, 일자리탐색활동의 공간이 확대되면 될수록 희망임금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van den Berg(1998)가 유자녀 여성의 통근시간에 대한 비효율이 매우 높고, 그들의 의중임금이 제시가능임금의 최대수준의 두 배를



초과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 2. 성별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

구직자의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DF=11에서  $\chi^2$ 값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구직자의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 : 순서로짓분석

변 수		계수	SE
인적 속성	연령	-0.0051	(0.0001)***
	저학력더미(고졸이하이면 1, 아니면 0)	-0.4002	(0.0033)***
	여성더미(여성이면 1, 아니면 0)	-0.3377	(0.0036)***
희망 일자리 정보	로그 희망임금	1.2224	(0.0045)***
	여성지배직종더미(기준: 남성지배직종)	-0.2715	(0.0042)***
	성경합직종더미(기준: 남성지배직종)	0.1027	(0.0042)***
지역및 가구환경	여성지배직종의 구인비중이 높은 지역더미	-1.4159	(0.0067)***
	빈곤가구여부(빈곤가구이면 1, 아니면 0)	0.4005	(0.0341)***
구직목적	취업목적 구직등록더미(기준: 공공근로 및 기타)	0.2882	(0.0067)***
	실업급여목적 구직등록더미(기준: 공공근로 및 기타)	-0.0379	(0.0069)***
	직업훈련 목적 구직등록더미(기준: 공공근로 및 기타)	0.4459	(0.0080)***
절편 1		5.1566	(0.0241)
절편 2		5.4445	(0.0242)
절편 3		9.0606	(0.0250)
관측치 수		1,914,996	
LR chi2(11)		279365.8	
Prob > chi2		0.0	
Log likelihood		-1793608	

\*\*\*는 0.1%, \*\*는 0.5%, \*는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먼저, 구직자의 개인적 특성이 잠재적 통근시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자.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여성일수록 잠재적 통근

시간은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Brännäs and Laitila, 1992; Madden, 1981)를 지지하였다.

둘째, 구직자의 희망일자리와 관련된 정보가 잠재적 통근시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자. 먼저, 구직자가 높은 희망임금을 가질수록 잠재적 통근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에서 일자리 탐색 공간이 넓어질수록 탐색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희망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통근거리가 멀어질수록 통근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므로 희망임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구직자의 희망직종이 여성지배직종일수록 남성지배직종에 비해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자의 희망직종이 성경합직종인 경우 남성지배직종보다 긴 통근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구직자의 지역 및 가구환경이 잠재적 통근시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면, 여성지배직종의 구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잠재적 통근시간이 짧은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빈곤가구가일수록 보다 통근시간이 긴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취업성공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탐색지역 및 취업희망 지역에 대한 제한이 느슨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구직등록목적과 잠재적 통근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취업목적 혹은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 공공근로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비해 비교적 긴 통근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여성 구직자는 남성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통근시간이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잠재적 통근시간과 취업가능성

여성구직자의 잠재적 통근시간이 취업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DF=13$ 에서  $\chi^2$ 값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추정된 모형과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직 등록한 구직자가 취업할 가능성은 37%로 나타났다.

먼저, 인적속성이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관찰 가능한 조건이 불변일 때 인적속성별로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이 1살 증가할 때 취업가능성은 0.5% 감소하였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8.7% 낮았으며, 저학력자는 고학력자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5.2% 낮았다.

둘째, 구직자의 희망일자리 정보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로그희망임금이 높을수록 고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희망직종이 성경합직종보다는 여성지배직종 혹은 남성지배직종일수록 고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관찰 가능한 조건이 불변일 때 구직자의 희망일자리 정보가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로그희망임금이 한 단위 높아질 때 취업가능성은 1.0%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직자의 로그희망임금은 구직자 자신의 생산성 수준으로써 구인자에게 신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지배직종을 희망하는 경우 남성지배직종이 희망직종인데 비해 2.6% 고용가능성이 높았고, 성경합직종을 희망하는 경우 남성지배직종을 희망하는 것에 비해 고용될 가능성은 1.4% 낮았다.

셋째, 구직자의 지역 및 가구환경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성지배직종의 구인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빈곤층이 아닌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구직목적이 취업, 실업급여, 직업훈련인 경우 공공근로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보다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통근시간과 고용가능성을 보면, 잠재적 통근시간이 길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잠재적 통근시간이 남성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성·잠재적 통근시간 교호항 변수를 구성하여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성·잠재적 통근시간 교호항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여성 구직자의 경우 고용가능성은 잠재적 통근시간이 짧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구직자의 취업희망지역 및 임금과 거주지와의 관계, 잠재적 통근시간에 대한 태도, 잠재적 통근시간과 취업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구직자가 남성구직자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한다는 것과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 구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통근시간을 받아들여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여성의 경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고용가능성 : 로짓분석

	emp	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인적속성	연령	-0.0236	(0.0001)***	-0.0055
	여성더미(여성이면 1, 아니면 0)	-0.3791	(0.0071)***	-0.0879
	저학력더미(고졸이하이면 1, 아니면 0)	-0.2248	(0.0035)***	-0.0527
희망 일자리 정보	로그희망임금	0.0433	(0.0047)***	0.0101
	여성지배직종더미(기준: 남성지배직종)	0.1124	(0.0046)***	0.0264
	성경합직종더미(기준: 남성지배직종)	-0.0611	(0.0046)***	-0.0141
지역및 가구환경	여성지배직종의 구인비중이 높은 지역더미	0.0202	(0.0065)***	0.0047
	빈곤가구여부(빈곤가구이면 1, 아니면 0)	-1.2426	(0.0512)***	-0.2250
구직목적	취업목적 구직등록더미(기준:공공근로및기타)	0.8751	(0.0079)***	0.2036
	실업급여목적 구직등록더미 (기준:공공근로및기타)	0.7381	(0.0081)***	0.1735
	직업훈련 목적 구직등록더미 (기준:공공근로및기타)	0.1456	(0.0094)***	0.0344
통근	잠재적 통근시간	0.0121	(0.0017)***	0.0028
	여성 · 잠재적 통근시간 교호항	-0.0072	(0.0024)***	-0.0017
상수항		-0.2402	(0.0255)***	
Number of obs				1817437
LR chi2(13)				89882.44
Prob > chi2				0.0
Log likelihood				-1159183.9

\*\*\*는 0.1%, \*\*는 0.5%, \*는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여성 구직자가 일자리 탐색과정에서 겪는 공간적 제한에 대해 잠재적 통근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여성구직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하며 취업가능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통근시간을 받아들여야 함을 보임으로써 여성구직자가 취업하고 싶어 하는 지역과 고용기회가 있는 지역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구직자의 경우 남성 구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거주지역내에서 취업하고 싶어 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Hanson and Pratt(1991), Mcquaid, R.W., Greig, M. & Adams, J.(2001) 등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가구책임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여성 구직자는 남성 구직자보다 희망 임금 수준이 낮으며 취업희망지역이 멀어질수록 희망임금은 높아지나 그 편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희망임금이 일자리 탐색비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일자리 탐색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여성 구직자 뿐 아니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지배직종의 직업을 희망할수록, 공공근로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하였다. 이는 여성 뿐 아니라 고령자 고용정책과 공공근로와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정책설계 및 실행주체가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여성 구직자는 짧은 통근시간을 선호하는데 비해 긴 통근시간을 받아들일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 구직자의 공간적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여성고용촉진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여성 구직자들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통근거리가 짧은 곳에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일자리 기회는 여성구직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분포하는 여성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통근권역을 고려하여 설계·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여성가장고용촉진지원금”제도의 경우를 보자. 만약 여성가장고용촉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사업장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의 통근가능거리 밖에 있다면 해당 여성 구직자에게 그 일자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정책수요자가 ‘여성가장을 채용하고자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여성가장이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전환할 때 정책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즉 정책 수요자와 대면하고 있는 지역 및 지자체의 관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여성고용촉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노시학·손종아(1993), 성에 따른 직주분리와 통근행동 패턴의 차이. 지리학, 제28권제3호, pp.227-246
- 노시학(2000),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취업형태와 통근통행패턴간의 연관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3권 제1호 pp.43~56
- 마강래·강은택(2008) 직장지와 주거지의 분포를 이용한 인구와 고용의 공간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9권 제2호 pp.33~48
- 박진희. 여성에 대한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009.
- 송윤선·남진·김도경(2008), 서울시 가구유형별 통근통행시간의 영향요인분석. 국토계획, 제43권 제3호 pp.7~20.
- 이성우·지우석·조중구(2004)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통근행태 비교, 1990-2000. 농촌경제, 제27권 제4호. pp.29~53
- 전명진(1996) 맞벌이 가계의 주거 및 직장선택과 통근행태에서의 성별차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1권제4호, pp.111~123
- 전은하·민성희·이성우 (2008), 통근시간이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 1990-2000.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제4호 pp.231~258
- Cahuc, Pierre and Zylberberg, André.(2004) "Job Search." In *Labor Economics*, pp.107-169: The MIT press
- Gobillon, L. Selod, H. and Zenou, Y. (2007), "The Mechanisms of Spatial Mismatch." *Urban Studies* vol. 44(12), 2401-2427
- Hanson & Pratt(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1(2), 229-253.
- Holzer(1986), "Search Method use by Unemployed Youth", *NBER Working Paper* No. 1859.
- Mcquaid, R.W., Greig, M. & Adams, J.(2001), "Unemployed Job Seeker Attitudes towards Potential travel to work times", *Growth*

- and Change*, vol.32, 355-368
- Rogers, C. L.(1997) "Job Search and Unemployment Duration: Implications for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42(1), 109-132
- Simpson, W.(1992) *Urban structure and the labour market*, Oxford Press
- Stoll, M. A. and Raphael, S. (2000) "Racial Differences in Spatial Job Search Patterns: Exploring the Causes and Consequences" *Economic Geography* vol.76(3), 201-223
- Van Den Berg, G.J. and Gorter, C.(1997) "Job Search and Commuting Time."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15 (2), 269-281



## Abstract

# Women Job Seekers Attitudes towards Potential Commute time and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Jin Hee Park<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mpirically that mismatch between areas at which women seek their jobs and areas in which there are job opportunities is one reason of women low employment rate.

In order to analyze this match, the author uses the concept of potential commute time for the spatial limits that women job seekers are experiencing during job-seeking. The administrative database of the minister of labor and employment's is used for empirical test.

The analysis shows that women job-seekers prefer short commute time. Moreover this paper shows that as there is gap between job search area and job opportunity, women job-seekers need to accept longer commute time if they want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This analysis concludes that policies about women employment rate should consider commute range in designing them if they would b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women employment rate.

**Key word :** potential commute time,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  
employment rate

---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Research Fellow (parkjh123@keis.or.kr)

